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만공 스님(5)

만공. 법문을 어디로 듣느냐

진성. 귀로 듣습니다

만공. 귀로 들으면 잘못된 법문이니라 (머리를 때리며) 알았느냐?

진성. "아야! 아야!"

1939년 동안거 해제 때였다. 몽골(蒙) 행자가 만공 노스님을 나아가 절을 하니, 물었다. "네가 누구냐?" "몽골이라 합니다." "이 곳에 무슨 일로 왔느냐?"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법문을 어디로 듣느냐?"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으면 잘못된 법문이니라." "그렇다면 어디로 듣습니까?"

음 땅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싹틔우기 위해서는 학인의 '마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만 선지식의 '마음 법문'이 진실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남악회양 스님은 마조 스님의 '도가 모습(色相)이 아니라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심지법안(心地法眼)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모습 없는 삼매도 그러하다"(마조특고) 답했다.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하니, 노스님이 쥐고 있던 '마음의 귀'가 열려야 법문 들려 주장자로 행자의 머리를 한 번 '딱!' 때리

실제로 온갖 고정관념과 사랑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이 진리의 말씀을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마조 스님은 "웃이고 밥 먹으며 말하고 대꾸하는 6근의 작용과 모든 행위가 모조리 법성(法性)이다. 그러나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서 명상(名相)을 좇으므로 미혹한 생각(情)이 허망하게 일어나 갖가지 업(業)을 지으니, 가령 한 생각 돌이켜 본다면(返照) 그대로가 성인의 마음이다"(마조특고) 밝히고 있다.

행자가 머리를 만지며, "아야! 아야!"하니, 스님은 주장자를 내리고 박장대소(拈掌大笑)하였다. 몽골 행자는 훗날 만공 스님의 선문답에 사마나 시자로 자주 등장하는 진성(眞性, 혹은 眞樞) 스님이다. 이 문답은 허투루가지처럼 물질(物境) 모르는 행자가 덕산의 호랑이를 놀린 격이지만, 만공 스님은 오히려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있다. 막 절에 들어온 어린 행자가 알고 모르고 하는 분별심을 떠나, "아야! 아야!" 하는 무심의 지혜 작용을 드러낼 줄 아는 법기(法器)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의 법문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개념과 분별심에 걸리지 않고 텅빈 마음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철 스님은 "불교를 바로 알려면 바위가 항상 설법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른 바 '무정물의 설법(無情說法)'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닌 주변의 풍경이나 사물이 드러내는 진실을 '무정설법'이라 한다. 그것은 의식으로 조작해서는 알 수 없는 진실의 세계이다. 철데없는 망상과 분별의식, 일체 관념이 사라졌을 때, 있는 그대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선(禪)의 세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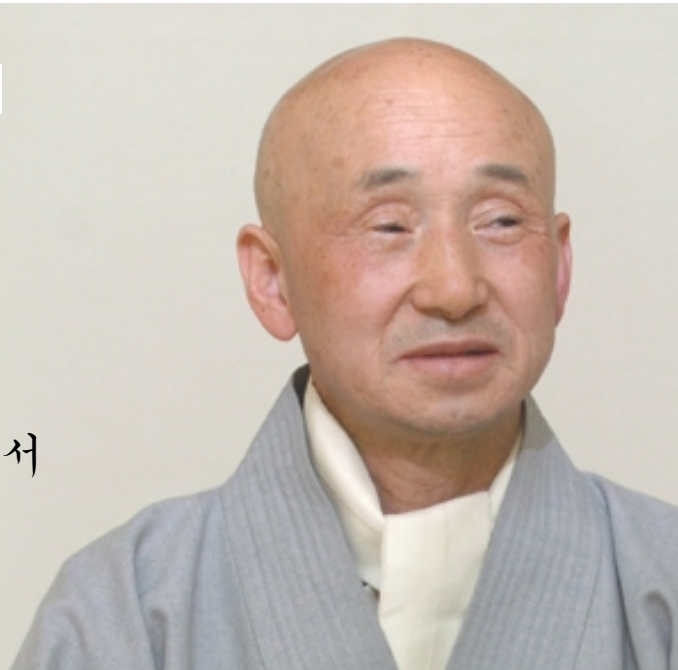
이 문답에서 만공 스님은 법문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디로 듣는다는 말인가? 흔히 '마음 땅'을 축축하게 적시는 '법의 비'를 심지법문(心地法門)이라 한다. 마

김성우 객원기자

“묵조선 기초수행으로 간화선 병폐 극복”

인터뷰 보광선원장 대현 스님

“화두를 듣답시고 사랑·분별심과 망상으로 현재, 과거, 미래와 동서남북을 왔다갔다 하면서 헤매기만 한다면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32년 자전적 '禪' 체험기 그린 <선승의 길> 출간 "회두 들기 전 번뇌·망상부터 쉬어야 깨달음 얻어"

지난 3월, <선승의 길>(현대불교신문)에이란 자전적 선(禪)체험기를 펴낸 선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보광사 보광선원장 대현 스님. 32년간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경험을 토대로 스님은, 간화선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엄불과 위빠사나, 특히 묵조선을 기초수행으로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다.

부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묵조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중심으로 인터뷰했다.

-간화선의 병폐란 무엇인가요? "간화선 초창기에는 선지식이 그때그때 화두의 물음에 따라 근기에 맞춰 격의답으로 그에게 꼭 맞는 화두를 정안해 주었다. 하지만, 송대에 와서는 이미 정형화된 1700공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참구토록 해, 마치 시장에 가서 기성복을 사서 입히는 것과 같았다. 이리다 보니 화두에 주작심(倣作心·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마음이 붙어 진의(眞疑)가 돋발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분별심도 화두공안을 일러고 하는 자, 경전이나 조사어록에서 인용하여 일러는 자, 일 없는 데 처박힌 자 등 여러 병폐가 생겼다."

-염불·위빠사나 간화선의 보조수행으로 가능할까요? "대뜸 '이렇고?'나 '무자' 화두를 들 것이 아니라 위빠사나를 간화선에 접목시켜, 곁으면서도 견고 있는 이 놓이 누구이고? 하고 관하고, 염불하면서도 염불하는 이 놓이 누구이고? 하고 관하는 것이다. 한 시도 있지 않고 관하면서 이렇고? 하게 되면, 번뇌·망상을 쉬게 되고 어느덧 화두가 물셀 틈이 이어지게 된다."

-묵조선이 기초수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을 가다듬어 밖으로 반연(攀緣: 얽힌 인연)을 쉬고, 안으로 혈떡거림을 쉬게 하는 수행법은 묵조선의 기본이다. 그렇게 보면 묵조선의 시조는 달마 대사라고 할 수 있다. 달마에서 흥인까지의 수인증과(修因證果)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관하는 정좌간심(靜坐看心) 선수후오(先修後悟)의 초기 묵조선이었다. 이러

한 선법은 깨짐 보다 깨지는 과정을 중요시 하고, 어떤 특정한 근기를 위한 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6조혜능 대사는 수행의 과정과 방법을 초월해 상근기의 언하변오(言下便悟)와 돈오돈수(頓悟頓修)만을 주장했다. 상근기는 점자와 방편 없이도 언하에 깨달을 수 있겠지만, 중하근기는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묵조선과 같은 특별한 수행의 점자와 방편이 필요하다."

-묵조선이 대해 스님에 의해 비판받은 까닭은? "묵조선의 근간은 감심선(看心禪)으로 청원행사-석두회현-약산유언-운암담성-동산양계-조산본적으로 내려오는 조동종의 선법이다. 묵조선이 송대에 와서 초기 묵조선은 흥내내는 병든 묵조선이 생겼으니, 이것이 '흑산(黑山) 아래 귀신굴에 빠져 삼립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無記)묵조선이다. 나는 묵조선을 셋으로 나눠 보았다. 비유하면 유위(有爲)묵조선은 유정난이오, 무위(無爲)묵조선은 어미 닭이요, 무기묵조선은 무정난이다."

-세 가지 묵조선의 특징은 무엇인지요? "유위묵조선은 선정후혜(先定後慧)의 돈오선이다. 먼저 선정의 기쁨으로 등잔을 채운 뒤, 돈오의 불을 붙여 무명장야(無明長夜)를 밝히고 같다. 초심자는 먼저 좌선으로 호흡을 고르는 삼심정좌(攝心靜坐)와 목이상조(默而常照)로 마음이 고요해져 사랑·분별심이 사라진 때, 선지식을 찾아가 공안으로 점결된다. 공안타파로 돈오하는 것은 간화선과 같지만, 정혜쌍수(定慧雙修)와 선정후혜라는 차이가 있다. 간화선의 거장인 대혜종고 스님도 묵조선의 대가인 광지정각 선사와 같이 묵조선에 뒤은 후 화두로 확대도했다. 점에 선 유위묵조선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무위묵조선에서 '목이상조'는 일체 모든 망상이 쉬어 묵묵한 가운데 항상 일체 만상을 살핌을 말한다. <금강경>의 '응당 머무는 바 없'는 묵(默)이요, '그 마음을 내다'는 조(照)다. 이는 무상구경각을 증득한 무심도인의 일용사유, 제불조사의 수용자를 말한다. 약산유언 선사의 경계가 대표적이다. 무기묵조선은 의도들이나 묵조선자 수행자들이 빠진 무기(無記: 흐리멍덩한 상태)로서, 임의로 생각을 비워 일으키지 않음을 중으로 삼아 토목와석(土木瓦石)과 같은 경지에 든다. 이들은 공안타파를 믿지 않으며, 공공적적(空空寂寂)한 무공공에 빠져 한 생을 그르친다."

결국, 무기묵조선은 제외한 묵조선과 간화선의 마지막 관문 통과는 '공안타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성우 객원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하지는 본래는 언제든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바타 센터 김희교

● **전환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tar.com
E-mail: heegyun@avatar21.com

수영개시판

- **금강경 육조해** 강·독송=부산 화평선원은 매주 월 저녁 8시, 매주 금 오전 11시 무거 스님의 <금강경 육조해> 강의 및 독송법회를 갖는다. (051)335-7112
- **주말 산사 집중수행**-영천 은해사 서운암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주말산방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행선, 원장서진 선택, 수행점진 및 자유점진으로 진행. (054)335-7926
- **위빠사나 10일 집중수행**-홍원사 성오 스님은 8월 31일~9월 9일 천안 호두마을에서 10일간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정원은 50명. (041)567-2841
- **절수행 삼매체행** 특강=법왕정사 주지 청견 스님은 7월 21일(토) 오후 7~9시 서울 대원정사 법당에서 절수행 삼매체행 및 건강비법 특강을 갖는다. (02)725-7011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1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법아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개론 · 선사사상 · 불교미술 · 불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 · 정업스님(승가대학교수)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 서성문스님(삼천사주지) · 김형운(동산불교대학교수) · 최중석(금강대학교수) · 김로기(동국대학교수) · 윤열수(문화재단문화원) · 종석스님(승가대학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사상담론 · 인도불교사 · 한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정병조(동국대학교수) · 김상현(동국대학교수) · 김성명(승가대학교수) · 묘주스님(동국대학교수) · 태원스님(승가대학교수)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유지반·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7년 7월 1일 ~ 2007년 7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유지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8월 4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 박중교수, 무진장스님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부산: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과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3년)	· 주역(1), 주역(2), 한자학원론, 설문해자, 중국고전(1,2) 한국고전(1) · 불교경전(1,2), 삼국유사(1)	임재우(연세대학교수), 삼계동(동국대학교수), 김영중(동대부교과대학사상경로(교과대학교수) 황인승(원경대학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승·인·분·음, 계다학(1) (2), 차도문헌 한국의 한다예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격경스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법, 여래초, 보살초, 사찰초등	김익홍(전통국대), 법인스님
불교정례문화학과(2년)	· 강례학개론, 강표제도론, 임종론, 불교상경례 등	김이혜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본),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한문학과(정규반) 10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반) 5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반) 30명 ● 불교정례문화학과(정규반) 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정규반) 3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7년 7월15일 ~ 2007년 7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정례문화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사찰음식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한문학과: 9월 6일 (목), 다도학과: 9월 4일 (화), 불교미술학과: 9월 4일 (화) 불교정례문화학과: 9월 4일 (화),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 4일 (화)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